

여수산업단지 안전보고서 “엔터리”

석유화학협회 용역보고서 오류 지적 ... 회원16사 조사내용 비공개

6월22일 오후 전남 여수시청에서 열린 <여수석유화학단지 특별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발표회>에서 제시된 일부 자료에서 오류가 지적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공업협회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용역사업이자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의 안전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모임이었던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용역기관인 서울대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는 6월22일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자료 12페이지 <사고원인 분석>에서 “1970-2001년 30여년간 여수산업단지 사고건수는 186건으로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 88%, 시설 노후 5%, 기타 7%”라고 밝혔다.

특히, 1991-2001년(10년간)에는 146건이 발생했으며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 68%, 시설노후 15%, 기타 17%라고 기재했다.

서울대 신기술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15쪽 <사고추이 분석>에서 “1970-1990년대는 안전관리시스템 및 설비 관리체계 미흡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1992년 이후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체계 향상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원인별 건수가 기재돼 있지 않은 보고서를 백분율(%)에 근거해 환산하면 30여년간(1970-2001년)의 사고 유형은 안전부주의 164건, 시설노후 9건, 기타 13건이고, 10년간(1991-2001년)은 안전부주의 99건, 시설노후 22건, 기타 25건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조사대상 전체 기간(30여년)의 시설노후와 기타로 인한 사고가 22건인 반면, 10년간 같은 유형의 사고는 47건이 되는 셈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고 있다.

사고발생이나 추이분석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기초자료인 만큼 이에 대한 오류는 보고서 전체에 대한 신뢰성에 큰 흠집으로 지적됐다.

사소한 잘못 같지만 배포된 자료가 8억2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권위 있는 연구소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후원으로 학계,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계자와 공무원, 여수산업단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 것임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조사대상 석유화학기업들의 안전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적지 않은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된 자료가 앞으로 여수산업단지 등의 안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나 시설개선 근거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각종 정책을 오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석유화학공업협회는 문제가 된 수치에 대해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30년 전과 10년 전의 조사기준이 달라 1990년대 사고건수가 더 많이 집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전점검 용역 사업은 회원사인 석유화학기업 16사에 한정된 조사였고 석유화학 플랜트의 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안전체계 구축 방법, 문제점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제시해 주기 위한 것일 뿐 여수산업단지 전체의 안전성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4/06/24>